

빛고을대로#4.

2021학년도 수시모집 자기소개서 작성 안내

VI. 사례

VI

사례

사례를 보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우수 사례를 보게 되면 학생들이 사례와 유사한 흐름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되어 학생 개인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고 더 나아가 유사도 검증에 걸리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사례를 참고하게 할 때에는 이러한 우려에 대한 부분에 충분히 숙지시킨 후 방향성을 잡기 위한 도구 정도로 참고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수 사례보다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보게 하는 것 또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례를 담아 놓은 이유는 전혀 작성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방향성을 제공하는 정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평가요소별 자기소개서 사례

1-1

학업역량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내용

영역	기록내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경제:수업활동 시 토의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조리있게 발표함. 수업시간에 공부한 주요 경제 개념을 활용하여 사회 현상,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토의하는 활동에 흥미 있어 함. 특히, 경제적 원리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례들에 관심이 많으며, 관련 자료(책, TED동영상등)를 찾아 문제점에 대해 고민해 보고 해결방안을 발표하여 경제 개념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큰 호응을 얻음. 수업시간에 제시되는 국내 총생산, 소득분배, 시장원리 등의 자료나 도표를 어려워하지 않고 경제적 의미를 부여하여 이해하고 설명함. 수행평가 활동으로 신문 기사를 조사하여 ‘브렉시트 영국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라는 제목의 분석적 기사를 작성함. 기사를 사실과 추론 부분으로 ~ (중략) 지적호기심이 강하며 높은 학습 의욕을 가지고 계획을 실천하는 능력이 우수하고 늘 자기주도적인 모습이 관찰됨. 전반적으로 경제 개념을 이용하여 사회를 분석하는 활동에 흥미가 있어서 ‘학교 석식권 거래시장 형성을 통한 경제적 이익’ 이라는 주제로 연구과제 논문을 제출하였음.

자기소개서 내용

1.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경제 시간에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장원리를 도입해 환경문제를 해결한 사례임을 배웠습니다. 주변의 문제들도 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중 영양사 선생님께서 석식 잔반으로 고민하시는 것을 보고 ‘**학교 석식권 거래시장 형성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주제로 소논문 연구를 했습니다. 석식을 신청하고 먹지 못할 경우 낭비가 생기고 석식이 필요한 경우 추가 구입이 불가능한 점에 주목해 수요자와 공급자간 거래중개 시스템을 통한 석식 중고시장 형성을 구상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 달에 약 3.7t, 250만 원어치의 잔반을 절약하고 석식 수요자 65%퍼센트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을 찾아 뵈고 도입을 건의 드려 공감을 얻었으나 교내 금전거래의 적절성 문제로 적용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시장원리가 많은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으며 새로운 방안을 도입할 때는 사회적 조건들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후, 경제적 원리를 사회문제를 ~**(중략)**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내용

영역	기록내용
수상경력	교내 친환경 공모전 금상(1위) 교과우수상(물리)
진로희망 사항	진로희망: 물리학자 희망사유: 세상을 이루는 기본 입자에 대해 호기심이 많고, 입자물리학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물리학자를 희망하게 됨.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2학년1학기)화학1: <u>화학뿐만 아니라 물리에도 관심이 높아, 물리와 관련지어 수업할 때 큰 흥미를 보이는 학생임.</u> 교사가 제시한 자료를 보고 주기율표로부터 알 수 있는 원소의 주기성을 모둠원과 적극 토의하여 도출해 냄. 분자 구조를 사례별로 암기하기보다는 전자쌍 반발이론에 근거해 논리적으로 예상함. <u>철의 부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위한 실험을 직접 설계함.</u> 화석을 통해 다양한 농도의 표준용액을 제조하고, 산-염기 직접 실험 후 보고서를 작성함. 이 과정에서 변인통제 및 실험기구사용능력, 과학적 추론 및 결론도출 능력면에서 두각을 나타냄. (3학년1학기) 과학사 및 과학철학:교사의 질문에 융합적으로 사고하여 답을 찾아 나가려는 태도가 돋보임. <u>갈릴레이의 낙하실험과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현대 물리학의 토대를 논리적으로 설명함.</u>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지적 노력을 추구한 과학도로서의 삶을 내면화하고, 인류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도로서의 태도를 가짐.

자기소개서 내용

2.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1500자)

3학년 과학사 시간에 갈릴레이의 낙하실험에 대한 여러 관점들 중, 합리적 관점과 실험의 중요성,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을 검증해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분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제게는 2학년 화학시간에 실험 수행평가로 금속의 부식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한 후, 결과를 해석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1학년 때 가설 설계에 대해 배웠지만 막상 해보니 변인인 물이나 산소등을 통제할 실험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단 순히 책상에서 금속의 부식을 배울 때의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2학년 여름방학 직전에 친구와 함께 친환경 학교 공모전 아이디어로, 학교에 농구부가 있다는 점에서 착안해서 농구골대 전등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당연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친구와 함께 여름방학 과제로 직접 제작해 보니 결과는 실패였던 것도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물리는 화학이나 생물학보다는 실험보다 이론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물리 역시 이론에 대한 실험의 검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학사정관 의견

- 물리에 관한 관심이 나타남.
- R&P 내용등 타교과목에서 진행한 물리연계 내용 기재 필요
- 변인 통제를 위해 노력한 내용 기재 필요
- 농구골대 전등 제작 내용과 실패 내용 확인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내용

영역	기록내용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물리실험반)동아리 부장으로 물리 실험을 계획하고 실험 안에 물리 법칙과 원리를 동아리 부원에게 설명하는 등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함. <u>축제를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직접 구상하고 모형을 만들었으며 기어와 캠의 원리를 설명하고 오토마타 만들기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물리실험을 이끄는 부원들을 직접 챙겨가며 축제를 준비하였으며 방과후에 늦게까지 남아 홍보물을 제작하고 부스를 꾸미는 노력으로 물리 체험 부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함.</u>

자기소개서 내용

3.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고등학교에 올라면서 제가 가장 기대했던 것 중 하나는 축제였습니다. 1학년 때 저희 부스에 오는 사람 수는 적었고, 별로 관심 있어 하지 않는 모습에 많은 부원들이 허탈해 하였습니다. 2학년이 되어 부장이 된 저는 주위에 물리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으니 물리를 친근히 느낄 수 있게 좀 더 흥미 위주의 실험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축제 부스 운영에도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어폰, 블루투스 스피커, 오토마타와 같이 흥미 위주의 주제의 실험을 준비하였습니다. 또 회의를 통해 축제에 관한 의견을 모아 전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전시 위주의 부스 구성을 체험 위주로 바꾸고 회의 결과 나온 수동 선풍기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켰습니다. 또 전년도에 반응이 좋았던 퀴즈도 확대시켰습니다. 부품이 영뚱한 것이 배송되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모두 각자 맡은 부분에서 열심히 축제 준비를 했습니다. 노력에 보답을 받듯 전년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동아리 활동이 막바지에 이르러 저는 축제와 흥미위주로 진행하려던 처음 목표에만 매달려 오히려 학술적으로 접근하고 싶은 친구들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중략) 혼자 단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란 불가능합니다. 모두의 협동이 그 조직에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에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바로 협동을 이끌어내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는 제게 한 모임의 리더로서, 또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좋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입학사정관 의견

- 학술적 접근이 미비한 점을 이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면 구체적임.
- 물리실험관련 체험부스 운영관련 내용에서 본인의 리더십을 명확하게 제시.
- 리더로서 역할 수행.

2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 사례

2-1

재료공학부

1. 미적분Ⅱ에 관련된 문제를 풀던 도중에 반감기에 대한 문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실제로 그런 식이 있는지 아니면 가상으로 만든 식인지 궁금했습니다. 인터넷 자료를 찾아 화학반응속도론이라는 분야가 있다는 것을 접하게 되었고, 초기속도법 및 적분속도법 등을 통해 반응속도와 반감기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중 일차반응의 반감기가 일정하다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져서 직접 영차반응, 일차반응, 이차반응 각각에 대한 미분방정식을 세우고 적분을 활용해서 풀어내어 각각의 반응에서 t 초 후 반응물의 농도, 반감기 등이 어떻게 결정되고 무었에 비례하는지 유도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미적분을 화학에 접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수업시간에 보고 배운 것들을 증명해보거나 다양한 곳에 활용해보며 공부하는 습관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화학Ⅰ 수업시간에 구조이성질체뿐만 아니라 광학이성질체도 있다는 것을 듣고 도서 탐독을 통해 광학이성질체의 정의와 다양한 사례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그 중 같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입체 배위가 다른 경우 인체에 이로운 물질이 매우 해로운 물질로 작용했던 사례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체 배위를 뒤집을 수 있는 화학반응이 있을까?’ 하는 호기심이 생겨 인터넷 자료를 찾았고, SN1반응과 SN2반응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3학년이 되어 화학Ⅱ를 배우며 SN1반응과 SN2반응이 떠올랐고, ‘반응이 더 잘 일어나는 조건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로젠화 알킬을 반응물로 정하고 용매의 극성, 반응속도, 화학평형 등의 개념을 적용해 반응이 더 잘 일어나는 조건을 구상했습니다. 화학개념을 실제 있는 화학반응이나 다양한 가상적인 조건에 적용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하는 것을 즐겨 하다 보니 개념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 2학년 때에 공학자로서의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과 자율동아리 ‘Plug-In’을 결성하고, 화학분과 팀장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그 중, 가슴기 세정제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발표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TV 뉴스를 통해 가슴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고 우리가 앞으로 공학자가 된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 동아리부원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 신문기사와 각종 블로그를 통해 PHMG, PGH 등의 독성을 가진 물질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조업체의 연구원이 호흡기로 흡입된다는 점을 간과한 채 이미 많은 항균제품에 두루 사용된다는 것과 피부에서의 독성은 적다는 것만을 보고 가슴기 살균제에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발표를 통해 생명과 건강 등의 국민의 기본권을 고려할 줄 아는 윤리의식과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갖춘 공학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에는 그 제품이 인간의 생명과도 깊이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영향을 빠뜨리지 않고 철저히 연구를 진행하는 자세를 갖춰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 부모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봉사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덕분에 중학교 때부터 부모님께서 독거노인과 장애우를 위한 무료급식봉사를 하러 가실 때면 함께 따라가서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찬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손질하거나 천막과 탁자를 펼치는 등의 제가 해야 하는 작업에만 열중했습니다. 어느 날, 무료급식봉사를 하는 도중에 홀로 식사를 하시거나 외로워 보이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그런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무료급식봉사를 할 때 쉬는 시간에 조금씩 시간을 내어 독거노인 분들의 말벗이 되어드리기로 마

음을 먹었고, 실천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머뭇거리기도 했지만, 그 분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려는 사소한 태도 변화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미소 짓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4. 독서활동

멋진 신세계(올더스 헉슬리 저)

비굴하고 우유부단하며 신세계에 적응하지 못하던 버나드 마르크스가 높은 자리에 오르자, 이전에 가졌던 사회에 대한 의구심을 전부 잊고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위선자처럼 행동한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이처럼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았고, 공학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위하는 도덕적 양심을 잃지 않고 목표한 것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언제나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생물학적 조립 생산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람, ‘소마’라는 고통을 줄여주는 약품 등 윤리의식을 무시한 채 과학 기술이 무분별하게 사용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이 도덕적, 사회적 검증을 거치며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만인 존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을 보며, 고통과 불안과 같이 정신적인 것은 과학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우며 인문학적 방법으로도 심리적 치유를 하여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일상적이지만 절대적인 화학지식 50(헤일리 버치 저)

화학에 관한 배경지식을 쌓아가고 친구들에게 설명해주는 것이 즐거워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앞서 읽었던 다른 화학 상식 책과는 달리 각 주제마다 비교적 자세한 설명이 있어 몰입하며 읽을 수 있었고, 더 알고싶은 내용은 그 내용을 자세하게 다룬 책이나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며 탐독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부분은 촉매크래킹 공정입니다. 학교 수업에서는 증기크래킹 공정만을 배웠지만, 이 책을 통해 색다른 소재에 대해 알 수 있었고, 두 방식 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궁금증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소했습니다. 플라스틱의 합성과 복합물질의 조합에 대해 읽으면서 재료공학 및 화학공학은 제품 제조 공정이나 우주항공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과제 해결의 중심적 역할을 하며, 현 시대의 첨단 분야 발전의 밑바탕이 되는 학문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냉장고용 냉매인 CFC, HFC와 태양전지 등의 사례를 접하며 재료공학은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를 바꾼 17가지 방정식(이언 스투어트 저)

수학동아리 ‘수력발전’에서 친구들에게 이 책에 대해 소개받았고 호기심이 생겨 읽게 되었습니다. 과학과 공학에서는 통계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정규분포와 관련된 부분을 더욱 집중적으로 읽었습니다. 미국에서 사회 전체의 지능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가정의 경제력과 자녀의 지능 사이의 관계에 대한 통계를 내고 이를 이용하여 가난한 가정의 복지비를 삭감하는 제도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러한 정책을 비판합니다. 저는 이 의견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통계는 단지 경향성만을 보여줄 뿐이지 모든 사례를 나타내지 않으며, 가난한 것이 지능이 낮은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통계자료를 잘못 이해했고, 그 결과 의도치 않게 결과를 왜곡하여 옳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통계는 맹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과 이러한 통계자료를 다룰 때에 더 넓은 시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 제 사전에 ‘의문’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섭섭할 정도로 공부를 하면서 많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문들을 항상 수첩에 기록한 후 학교에서 배우는 것 이상의 내용을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해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한 예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안에서 받는 자기력을 도선 주변의 자기력선의 밀도를 통해 설명하는 직관적인 설명을 보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력을 직접 계산해보았습니다. 공간에서의 각 점의 자기장을 계산할 수 있다면 자기력을 결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책을 찾아보던 중, 미적분학 책에서 벡터장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벡터장에 대해 공부하고 계산해본 결과, 도선 주변에서의 자기장을 수학적으로 볼 수 있었고, 자기력에 대한 직관적 설명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자기장 계산을 위해 그린 그림을 보면서 자기력의 결정 원리가 물리 시간에 배운 마그누스 효과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연속적인 유체의 운동에 대해 다루는 마그누스 효과와 자기력을 비교해보면서 의문을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배운 내용을 다른 것과 접목시키는 ‘융합적’ 사고를 통해 호기심을 확장해갔습니다. 이렇게 공부한 예시들 중 하나로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만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받는 사회적 자극의 정도에 따라 사회 현상의 양상이 달라지는 역치를 알아낼 수 있는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이러한 학습방법을 통해 서로 다른 과목을 넘나들면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것들 사이에 남들이 생각해보지 못했을 연결 고리를 찾고 이를 주제로 탐구하는 것의 즐거움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수학이 과학, 예술, 사회과학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융합 교육 속에서 수학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자질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2.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쌓기 위해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도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뮤지컬 창작 활동입니다. 소설 ‘우아한 거짓말’을 각색하여 뮤지컬을 만들기로 했는데 어울리는 노래를 찾기가 어려워 직접 작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곡의 분위기에 대한 친구들과 사이의 의견 갈등도 있었고, 작곡 자체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떤 일든지 시도해보지 않고는 해낼 수 없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분위기의 곡을 짧게 준비하여 서로 반대되는 느낌의 곡을 두 개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해 친구들의 의견 충돌도 해결하고 선정된 악상을 바탕으로 노래를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주제발표 시간은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직접 공부할 내용을 계획하고 다른 친구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전할 수 있는 자율적인 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비탈과 슈뢰딩거 방정식’을 주제로 발표한 경험은 그 어느 것보다 즐거웠습니다. 오비탈이라는 파동함수를 사물을 다루듯이 표현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오비탈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친구들과 공부한 것을 나눴습니다. 발표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오비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전달하였고, 덕분에 친구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주제발표 활동을 통해서 학생 참여 수업이 수업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을 유도함으로써 학업 능력을 길러줄 수 있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3.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수학을 배우고 싶어 하는 후배 2명을 만났고, 후배들이 어려워하는 수열과 미적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후배들에게 그동안 공부하면서 얻은 것들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얻은 노하우를 쏟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기 위한 방법 중에서 자료를 직접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멘토링에서 다룰 소재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정리하고 직접 문제를 만들어보기도 했습니다. 문제를 만드는 과정 자체도 쉽지 않았지만 문제 제작 매뉴얼에 맞추어 만드는 것은 더 어

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고민의 결과물과 함께 저의 재능을 나눔으로써 개념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다양한 풀이 방법을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후배들의 반응을 보면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를 계기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그 결과 2~3학년 수학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유리함수의 회전, 거울을 이용한 원순열처럼 익숙한 소재에 참신한 생각을 담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고,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평균값 정리, 공간도형, 미분을 소재로 하는 문제들을 통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제 열정을 쏟아 만든 결과물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했고, 이후에 후배들과 친구들이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4. 독서활동

신은 수학자인가?(마리오 리비오 저)

수학을 공부할수록 많은 내용들이 공리들로부터 이끌어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수학의 철저함에 궁금증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학은 왜 완벽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던 중에 이 책을 통해 수학의 체계에 대한 저만의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학은 ‘발견’되고 있다는 입장과 수학은 ‘발명’되는 것이라는 견해를 모두 살펴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학은 발견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저에게 수학이 인류의 생각의 산물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설명하는 ‘언어’인 수학을 통해 ‘발견’의 입장과,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필두로 나타난 예를 통해 ‘발명’의 입장을 두루 살펴보면서 수학은 이분법적 태도를 통해 얻게 되는 답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라는 새로운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이를 통해 상상력을 통한 능동적인 독서의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 대통령을 위한 직언직설(이기정 저)

공부를 하다 보면 학교에서 다루는 것 이상의 것들을 공부하고 싶을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시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에서는 하고 싶은 공부를 위한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입시 중심적 모습에서 벗어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이 책을 읽었습니다. 독서를 통해 학생들의 주도적인 학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책에 소개된 무학년 학점제와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는 교육적으로 긍정적일 것이라는 인상을 받음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학반 편성, 교과별 수요의 편차, 학생 관리 등의 다양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변화가 수반되지만 현실과 새로운 사이의 적절한 균형에 대한 신중한 고민을 통해 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함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튜링 & 괴델: 추상적 사유의 위대한 힘(박정일 저)

이 책에 대해 짧게 표현하자면 최근 읽은 책들 중 가장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책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튜링이라는 수학자에 대해 알고 싶어서 골랐던 책이 어느새 당대 수학 속의 철학과 수학계에 제기된 과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저를 끝없이 몰입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발명품 중 가히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의 발명 속에 감춰져 있던 수학계에 제기된 완전성, 엄밀성에 대한 위기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만들어지기까지 논리학, 수학철학 등 다양한 부분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어 왔고, 이 모든 것이 순전히 ‘생각’으로부터 이끌어져 나온 것임을 보면서 농업, 산업, 의학 혁명과 같이 인류의 역사를 여러 차례 바꾼 사유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공부나 진정 생각하는 공부였는지 반성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공부 가운데 이미 알려진 지식들을 배우면서도 능동적으로 생각하기를 자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1. 국어와 문학에 빠졌던 제 고등학교 생활은 언어에 관한 탐구의 연속이었습니다. 국어 시간에 ‘한국어의 위상’을 수업한 후 ‘어떻게 하면 외국인들에게도 한국어를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를 계기로 영어에 조사를 도입하여 어순을 바꾸는 방안을 생각해 교내 영어창의력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후 동아리 활동 중 고대 차자표기법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중간언어’ 개념을 제시하며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켰습니다. 저는 기존에 사용하던 언어가 말을 표기하기에 어렵거나, 자신들의 말을 표기할 수단이 없는 민족들이 한글을 바탕으로 언어생활을 하는 방안을 더 공부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글이 없었던 ‘과거’에 쓰인 차자표기법이 ‘미래’에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생각한 아이디어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전에 없던 새것은 없다. 훌륭한 선례를 본받되 현실에 맞게 고쳐라.’라는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미래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단서가 과거의 문화, 언어, 문학 등에 담겨있기도 하기에, 배우는 자세로 과거를 대하고, 과거에서 배운 점을 현실에 맞게 변용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실생활에서 언어 사용뿐만 아니라 음악과 영상매체 등 다른 분야에서의 한글 파괴가 우리 언어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했습니다. 친구들과 프로젝트 그룹을 조직하고 활동하며, 학생들이 문법에 오류가 있는 대중가요 가사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생활에서 사용한다는 것을 도출했습니다. 노랫말에서 일어난 한글 파괴를 운문의 ‘시적허용’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견해를 접하며 무엇이 옳은 것인지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사가 학생들의 언어생활에 실제로 영향을 줄을 확인한 후, 대중가요 가사를 접할 때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생활 대화, 제품명 등에서 한글 파괴 실태를 교육하는 지금에서 더 나아가, 앞으로 국어교육은 ‘매체에서의 언어사용’도 중요하게 다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 시를 공부할 때, 한 가지 해석만을 정답인 것처럼 가르치는 학교공부와 참고서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친구들과 공부 모임을 만들어 처음 접하는 시를 사전 지식과 해석 없이 읽고, 각자가 느낀 그대로 시를 해석하고 감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다양한 해석들을 나누었고, ‘열린 해석’은 저에게 능동적인 감상 태도를 길러주었습니다. 저는 텍스트의 의미는 저자의 의도보다 독자의 해석에 의해 창조되고, 독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효용과 감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문학에는 답이 정해지지 않았음을 배웠습니다. 문학이라는 무한한 캔버스를 한 페이지의 객관식 시험으로 평가하는 교육에 더욱 의문을 가지며, 비판적 감상 태도를 키우고 자유로운 해석을 이끄는 문학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실생활에서 언어의 작용을 탐구하고 싶어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 ‘광고언어와 문화’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동일한 제품의 광고지만, 나라마다 광고 문구와 대사에서 차이가 드러나 다른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 광고의 우회적 말하기, 미국 광고의 직설적 말하기 등 한미일 3국의 광고 언어 특징을 조사했고, 문화 특징이 광고 언어 사용에 반영되어 있음을 도출했습니다. 각 문화의 특징을 반영한 광고 문구를 만들어 설문조사를 했을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반영한 문구를 선호했습니다. 저는 문화에 맞는 광고언어 선택이 광고의 효과에 영향을 줄을 확인하면서, 언어는 문화를 반영하기에 사람의 심리와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아가 문학에서도 문화적 차이가 단어선택에 미묘한 차이를 주어서, 번역 문학의 경우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학이 세계에 진출할 때 작품을 잘 담아내려면 각 나라의 문화와 언어에 맞는 번역이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했고, 이에 관련해서 국어를 더 깊게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심화영어 수업에서 범정의 잠언집을 영어로 번역한 ‘May all beings be happy’라는 책을 골라 꾸준히 읽었습니다. 여러 주제의 짧은 글들을 엮은 책이라 중심 주제를 정하기 힘들었지만, 저는 행복의 비결을 주

제로 ‘지혜와 무욕’에 대해 발표를 구상했습니다. 한글판과 영문판의 글을 비교하면서, 한글로는 길지 않은 문장이 번역본에서는 두 줄이 넘어가는 것을 보고 한국문학이 고도의 함축성을 가진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원본에서 드러나는 어감을 번역에서는 그대로 다룰 수 없음을 느끼며, 일대일 번역도 중요하지만 문장과 문맥에 맞는 번역도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법정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언급한 ‘지혜와 무욕’이 우리 고전시가에서 선비들이 추구했던 ‘배움과 안분지족’과 상통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국문화에서 중요한 가치로 전승된다고 생각했고, 자유롭게 배울 수 있음에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4. 소년이 온다(한강 저)

자율동아리 활동에서 역사와 함께하는 문학을 주제로 활동하며 읽게 된 책입니다. 각 장마다 서술자를 달리하고, 특히 ‘너’를 지칭하는 2인칭 서술은 마치 5월 광주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사실적인 묘사에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받았습니다. 저항했던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폭력에 맞서면서도, 양심을 바탕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냈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책 속 질문은 저에게 명령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규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존엄성이고, 이것을 지켜나간 사람들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문학이 아픈 역사를 일깨우는 동시에 역사에 대한 반성을 이끄는 가장 좋은 교과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문학 속 아픔에 공감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되살아날 수 있는 또 다른 ‘광주’를 경계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평균의 종말(토드 로즈 저/정미나 역)

이 통계의 함정을 드러낸 ‘심슨의 역설’을 조사하고, 비슷한 주제의 수학책을 읽었던 저에게 평균을 ‘종말’시킨다는 책의 제목은 대단히 매력적이었습니다. 평균적인 사람은 존재하지 않다는 여러 사례는 개개인과 관련된 결정에서 집단의 평균은 무의미함을 드러냈습니다. 평균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평균적 인간개념’의 영향을 폭넓게 설명하고 있어서, 개개인성을 무시한 테일러주의가 현대 교육과 업무 체계 등에 악영향을 끼쳤음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개인성의 3원칙 중 ‘경로의 원칙’을 통해 교육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인간의 다차원적 지능을 고려하여, 같은 목표이지만 서로 다른 방식과 속력으로, ‘따로, 그러나 같이’ 나아가는 교육을 통해 평균에 맞춘 교육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문학비평 교육에서도 비평이라는 목적은 유지하면서, 특정 관점에 얽매이지 않고 독자마다 다르게 반응하고 해석하는 것을 존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오신화(김시습 저/이지하 역)

문학 수업에서 ‘이생규장전’을 배우던 중, 금오신화의 다른 작품들에도 같은 작가의식이 드러나는지 궁금해 다섯 작품을 다 읽게 되었습니다. 모두 주인공들이 산속으로 잠적하거나 죽음으로써 이야기가 끝났고, 이는 세조의 왕위 찬탈에 반대한 김시습의 저항의식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남염부주지’에서는 작가의 대변인인 박생이 저승사자의 대화에서 자신의 정치적 생각을 자유롭게 드러내며 세조를 은근히 풍자했습니다. 저는 현대문학이 사회문제를 고발하는 것처럼, 조선시대에도 문학은 사회를 고발하는 수단이자 작가의식을 우회적으로 표출하는 수단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전문학 속 사회문제와 민중의 요구가 현대와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점에서 고전문학이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를 발휘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를 반성하며 다시 내일을 맞을 수 있는 살아 있는 문학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례1. 이렇게 써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통계자료를 통해 사회현상을 통찰할 수 있음을 깨닫고 이것이 사회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학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문학작품 ‘홍보가’에서 매품 가격이 6냥이였음을 읽고 다른 재화들의 시장 가격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조선 후기의 물가와 1인당 GDP를 구해 조선 후기의 궁핍한 생활상의 원인을 탐구해 발표했습니다. 또한, 한국사 과목에서는 개화기 우리나라의 경제가 일본에게 점진적으로 장악되었다는 사실을 일본으로의 곡식 수출량과 조선 내 일본 화폐 사용률을 연도별로 조사해 그래프로 만들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 다양한 표와 그래프를 사용하는 ‘확률과 통계’ 과목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저조했던 수학 과목 성적을 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입학사정관의 한줄 평

□ 융합 & 연계

-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여러 교과에서 학습한 과정이 나타나네요. 흥미 있는 주제에 대해 문학, 한국사, 수학을 연계하는 학문 간 융합을 시도했네요.
- 본인의 관심사를 한 곳에서만 드러내지 않고 다양한 과목과 연계하려 한 흔적이 보입니다. 본인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과목에서든 본인의 관심사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겠네요.
- 단순히 통계자료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닌 사회, 국어 등의 과목을 통해 학문 간 연계 학습을 했다는 점에서, 본인의 관심사를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여 충분히 찾아보고 다각도로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 문학작품을 통해서 사회상을 탐구하려는 자세가 인상적입니다. 실제 자료를 찾는 접근방법에서 사회와 통계를 융합하는 적극성을 볼 수 있습니다.

□ 교과에서 확장

- 한 가지의 가격 정보로부터 시대별 상황을 통계학적으로 유추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하고 지식을 확장해 본 경험이 잘 드러나게 작성했네요.

[사례2. 이렇게 써보는 건 어떨까요?]

물리 시간에 중력자는 중력파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빛은 입자성, 파동성을 모두 갖기에 궁금증이 생겼고, 중력파의 직접적 검출 사건을 접하며 이에 대한 관심을 키워 갔습니다. <중력파 아인슈타인의 마지막 선물> 책을 읽으며 ‘작용 반작용을 매개하는 파동은 없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의문점을 꼭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친구들과 동아리를 만들어 작용·반작용을 매개하는 파동을 스티그마라고 가정했습니다. 가설을 설정해보니 궁금증은 커졌고 과학자들이 왜 증명에 집착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티그마가 반사될 때 크기는 보존된다.’라는 가정이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오류가 생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친구들은 탐구가 실패했다며 실망했지만 저는 오류 발견 또한 값진 경험이라며 말하며 오류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자고 격려했습니다. 토론을 통해 파동이 반사되면서 에너지의 손실이 생겨 파동에너지 공식에서 진폭, 진동수가 감소한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몇몇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실험을 통한 이해의 즐거움을 주고 싶어 물결과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물방울의 높이를 변인으로 하여 파동의 속력을 측정했고 에너지와 속도의 관계를 함수로 표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힘의 크기에 따라 스티그마의 크기에 왜곡이 생긴다는 가정을 이해했고 체험을 통한 공부하며 즐거워하는 친구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 입학사정관의 한줄 평

□ 호기심 확장

- 물리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호기심으로부터 가설을 설정하고 확인하는 모습과 고교에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 교과 수업에서 가졌던 호기심을 독서 및 동아리 활동으로 확장했고, 그 탐구과정에서 지원자의 생각이 잘 나타난다고 있네요.
- 본인의 의문 형성 과정을 보여주며, 순차적으로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과 노력, 느낀 점, 실패의 원인 분석 등을 잘 기술했습니다.

□ 오류에 대처하는 법

- 학습 경험에 대한 과정과 결과를 서술할 때에는 반드시 성공의 경험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탐구가 실패했을 때 오류의 원인을 찾아나가는 과정, 새롭게 알게 된 점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도 학습에 대한 열정과 적극성을 드러내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어요.
- 오류가 나도 그 오류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 생동감 있는 과정과 경험

- 일반적인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해본 과정을 생동감 있게 서술했네요. 과학적 사고력의 성장은 실제 경험을 통해서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 교과 시간에 배운 내용을 그 내용 자체만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 활동으로 의문을 이끌어 낸 점과,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통해 해결해 보려고 한 점이 좋습니다.

[사례3. 이렇게 써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수학문제를 푸는 태도에 대해 돌아보고자 풀었던 문제집을 분석했습니다. 주어진 구간에서 함수의 불연속점을 놓치거나, 문제에서 제시한 답의 수치범위를 넘어서는 답을 구하는 등 문항에서 제시한 조건을 고려하지 못한 탓에 틀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뚜렷한 계산과정 없이 직관적으로 푼 문제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한 채 넘어간 문항도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허술한 문제풀이를 보완하기 위해 문제를 완벽히 풀어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풀이과정을 해설지처럼 풀어나가며 문항에서 제시한 조건 분석부터 개념 적용까지 풀이를 단계적으로 써 나갔습니다. 정확한 과정 없이 푼 문제는 세모표시를 하고, 한 문제집을 반복적으로 풀며 오답에 대한 분석을 이어나갔습니다. 점차 성적이 오르는 결과가 나타났고, 스스로 문제집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한 경험은 제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원인을 분석하고 고치고자 노력하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졌습니다.

□ 입학사정관의 한줄 평

□ 단점을 보완하는 자기반성의 과정

-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자신의 실수를 알고 고쳐나가려는 모습이 긍정적입니다.
- 자기반성을 통해 학습을 진전시켜나간 점이 돋보입니다. 문제풀이 점검, 오답 분석 등 본인의 학습태도를 수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추후 대학에 진학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스스로 부족했던 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 적용하는 노력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잘 기술했습니다.

□ 학업을 대하는 자기주도적 태도

-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분석·해결해 나간 경험은 앞으로 대학에서 학문을 함에 있어서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 자주 틀리는 문제 분석, 원리를 알기 위해 접근하는 모습·학업에 대비하는 좋은 태도를 보여주었네요.
- 풀었던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학습 자세를 배웠다는 점에서 지원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 자신이 겪은 경험과 다짐까지 잘 기술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훨씬 좋은 자기소개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례4. 이렇게 쓰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습니다.]

저는 영어말하기 대회를 준비하며 제 생각을 타인에게 전달해야 할 때 명쾌하게 영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영어능력이 향상됨을 확인하여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교과 시간 및 다양한 교내 영어 경시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밖에도 저는 고등학교 재학 중 교과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었고, 능동적인 학습의 유용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 입학사정관의 한줄 평

▣ 추상적 서술, 구체성 부족

- 구체적이지 않아요,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어떤 주제로 어떤 발표를 했는지 서술해 주어야 자기소개서를 따라가며 이 학생이 어떤지 그럴 수 있는데, 학생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과와 관련된 어떤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어떤 새로운 지식을 빠르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습니다. 또한 지식을 ‘포용’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쓴 것인지도 의문이 들어요. 결국 어떻게 ‘능동적인 학습’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쓰지 못했네요.
- 영어 능력이 향상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만 나열해서는 어떠한 학습 과정과 방법을 통해 능력이 향상됐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에 대한 과정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보기 바랍니다.
- 어떻게 영어 능력을 향상했는지,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없을까요?

▣ 과정과 결과, 근거를 추가해 보세요

- 학업능력이 향상되었다는 내용이 서술되었지만 너무 추상적이네요. 학습 과정과 근거, 결과가 같이 나타난다면 지원자의 학업역량을 더욱 잘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단순한 활동 나열보다는 각각의 활동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얘기하면 좋겠어요.
- ‘교과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진행했는지,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나 궁금증을 해결한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명쾌한 영어 구사 능력을 어떤 방법으로 발전시켰는지 궁금하네요. 영어 교과시간 및 교내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 보면 어떨까요?

[사례5. 이렇게 쓰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기간 동안 내신 1등급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주요 교과목의 내신이 좋습니다. 특히 수학, 과학 과목을 좋아하여 어느 과목보다 열심히 공부하였고, 수학과 과학 경시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경험도 있습니다. 2학년 때부터 독서반 동아리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을 수 있었으며 7명의 친구들과 함께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이어서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었고, 교내 다독상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 입학사정관의 한줄 평

□ 학생부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교과 성적 등급에 대한 내용은 학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자기소개서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단순히 나열식으로 서술하기보다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해본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보여주면 어떨까요?
- 학업 성적에 대한 표현이나 경시대회, 교내 활동 수상 내역은 생활기록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학업 성취도나 수상 경력과 같은 결과의 나열보다는 지원자가 스스로 자신있다고 생각한 교과목을 공부한 과정이나 학습 능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교내 활동에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학업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에서 출발한 문제의식

- 단순히 교과 성적과 수상경력을 언급한 것은 글자수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게 의미가 있었던 학습 경험은 무엇일까? 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보세요.
- 학습 목표나 호기심을 가진 분야가 나타나지 않아요.
- 독서 활동을 통해 어떤 점을 느끼고 무엇을 배웠는지, 그것이 본인에게 어떤 강점으로 작용하였는지 드러나도록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구체적 과정 추가

- 독서반 동아리에서 다양한 책을 읽었다면 어떤 책을 읽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면 어떤 주제로 어떤 토론을 했는지 입학사정관이 알 수 있게 적으면 좋지 않을까요?
- 자기소개서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의 나열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이루어내기 위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6. 이렇게 쓰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습니다.]

저는 ‘왜?’ 라는 의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업을 탐구하는 태도를 키웠습니다. 의문은 또 다른 의문을 낳았고 이를 해결하면서 폭넓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도 의문을 갖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연스레 개념과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어 남들보다 학습 진도가 항상 뒤쳐졌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 입학사정관의 한줄 평

□ 어떤 의문?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어야

- 의문을 해결하는 과정을 추상적으로만 서술하고 있어요. 어떤 의문을 가졌는지 구체적인 의문이나 해결과정을 보여줘요.
- 어떤 의문을 말하는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그 의문이 없습니다. 어떤 개념을 말하는 것인가요? 학습과 관련한 에피소드를 소개해줘야 입학사정관이 그 에피소드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 학생이 어떤 것을 어떻게 느끼고 배웠는지 파악할 수 있겠죠.
- ‘의문’이라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열심히 공부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의문’과 ‘의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례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자기주도적으로 학업을 탐구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과정은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합니다. 단순히 그 태도와 노력이 있었다고만 언급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 실제 학습 경험이 궁금해요.

- 학업 동기와 학습 과정을 추상적, 일반적으로 서술한다면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학습 역량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학생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공부 방법이나 학습 동기를 쓰기보다는 지원자의 실제 학습 경험을 스스로 돌아보고 사례를 찾아서 학습역량의 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본인이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한 내용이 있다면 그 과정과 결과, 느낀 점 등을 자세히 작성해 주세요.

[사례1. 이렇게 써보는 건 어떨까요?]

의림지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명소이지만 보다 나은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림지 개선 방안’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의림지를 둘러보면서 아쉬웠던 점은 소나무와 어우러지는 꽃을 보기가 드물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경에서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는 ‘어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림지 이용객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들이 미관적인 어울림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꽃을 소나무 밑에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생명과학시간에 개체군 간의 경쟁으로 인한 타감작용을 배우고 소나무 주변에는 식물이 잘 자라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미관의 어울림만을 생각했던 태도를 반성하고 소나무의 화학작용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울창한 침엽수림 아래에서도 잘 자라는 음지식물인 맥문동을 조성하는 방안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 입학사정관의 한줄 평

□ 지원 학과의 특성을 반영한 활동

- 학교생활에서 의미 있었던 활동을 쓰려고 찾아본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하려는 학과 선택이나 앞으로 하고 싶은 분야에 영향을 주었던 활동을 잘 생각해보고 2번 문항의 글감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현상, 학문적 개념, 특정 장소 등에 대한 관심이 어떠한 활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면 됩니다.
-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진행한 점이 돋보입니다. 특히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구체적인 활동으로 만들어 낸 점,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점, 다른 교과 내용을 연계하여 활동한 점을 작성한 부분이 좋습니다.
- 활동과정에서 전공에 대한 지원자의 관점 및 문제해결을 위한 탐구과정을 엿볼 수 있어요. 이를 통해서 지원자의 전공에 대한 관심을 느낄 수 있어요.
- 주변 환경을 통해서 전공과 관련된 흥미를 드러내고 있으며, 전공 관련 교과를 통해서 조경에 관한 지원자의 활동사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 활동의 과정, 결과와 대안

- 추구해야 할 가치, 활동의 과정, 그리고 그 결과와 대안을 잘 기술했습니다. 면접에서 면접관이 지원자의 생각이나 지식수준 등을 물어보고 검증하고 싶은 구체적인 자기소개서입니다.
- 보고서 작성과정을 통해 다방면으로 조사하고 노력하는 태도, 또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습득하고 배우는 모습이 긍정적입니다.
- 지원자가 살고 있는 지역 명소에 대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였고, 보고서의 내용과 작성동기에 대해서 잘 설명하여 입학사정관이 지원자의 생각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점이 좋습니다.
- 보고서 작성 과정을 통해 본인이 미처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되고 반성하면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나간 과정을 구체적으로 잘 작성해 주었네요.

[사례2. 이렇게 써보는 건 어떨까요?]

독서와 문법 시간에 형태소에 대해 배우면서 형태소 분석은 단어를 직접구성성분으로 나누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들을 형태소 단위로 분석해보는 공부로 연결되었고,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 를 어절, 단어, 자립/의존/실질/형식형태소 단위로 분석해보기도 했습니다. 직접구성성분에 대해 공부를 하던 중 ‘단팔죽’이라는 단어는 단+팔죽으로도, 단팔+죽으로도 분석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팔’을 독립적인 형태소로 인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언어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분석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입학사정관의 한줄 평

□ 구체적 예시의 힘

- 문법이라는 관심사를 문법 학습 안에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 작품까지 확장하여 학습한 점이 돋보입니다. ‘단팔’의 독립적인 형태소 인정 여부에 대한 본인의 생각까지 추가하여 작성한다면 더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것 같습니다.
- 지원자가 실제 탐구했던 내용을 예시로 들고 그 활동이 점차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주어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어떤 지점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 추가로 궁금증을 유발

- 교과시간을 통해 배운 내용을 실생활과 연결하여 생각하면서 느낀 깨달음을 매끄럽게 기술해 주었네요. ‘단팔죽’ 외에 들 수 있는 예시가 있다면 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 언어를 분석하는 관점이 생동감 있네요. 언어를 분석하는 습관이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을 잘 이끌어냈습니다.

□ 자연스럽게 과정과 결론을 풀어냄

- 본인의 탐구 과정을 단순 나열이 아닌 구체적으로 잘 써주었네요. 수업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자신의 관심사에 맞게 확장시키고 추가적인 탐구를 진행해나간 과정이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 안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신의 생각을 단계적으로 잘 풀어내었으며 결론까지 도달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 관심의 확장과 탐구

- 지원자가 관심을 가졌던 탐구주제가 소개되고 구체적인 탐구내용이 작성되었네요. 지원자가 실제 탐구를 하고 관련 분야의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느껴져요.
- 교과과정에서 배우는 학습내용을 가지고 지원자가 심화학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례3. 이렇게 써보는 건 어떨까요?]

저와 친구들은 청소년 학교폭력 쉼방망이 처벌에 분노하여 토론 동아리 ‘일취월장’에서 학교폭력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하여 토론을 했습니다. 주제를 듣고 교화 불가능, 높은 청소년 재범률 등을 생각하면서 대부분의 친구들처럼 처벌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고의 전환과 차별화된 생각을 하고 싶다고 느껴 반대의 입장에서 토론했습니다. 반대의 입장을 정리하던 중, 청소년 개인의 문제가 아닌 미디어 노출과 환경에도 원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처벌 강화에 찬성한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았기 때문에 더욱 날카로운 질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한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양면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입학사정관의 한줄 평

□ 생각의 유연함을 보여주는 사례

- 대다수가 찬성이라고 생각하는 토론 주제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입장에서 서서 사고의 전환을 경험해보고자 한 점이 돋보입니다. 반대 입장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찾는 과정 그리고 그러한 토론을 통해서 알게 된 점을 작성한 점이 좋습니다.
- 지원자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였는지에 대한 사례도 지원자의 역량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토론의 경우 논쟁에서 승리했다는 결과보다는 준비 과정과 토론의 내용, 새롭게 알게 된 점들에 대해 써주는 것도 좋습니다.
- 단순히 양비론적, 양시론적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입장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 세운 전략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내용도 구체적이고, 그를 통해 배운 점까지 잘 서술했네요. 이런 공부 방식은 대학에서 토론, 글 쓰기 등을 할 때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면접에 불려서 얼마나 깊이 공부했는지 집중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면

- 특정 시안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논거와 주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고가 향후 전공하고자 하는 영역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 특정 상황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갖추게 된 내용이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잘 드러나네요. 토론 준비를 위한 근거나 자료는 어떻게 수집하였는지도 작성해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 학습과정과 활동 참여 태도

- 토론 활동에서 소수의견의 입장에서 활동하며 입장에 따라 다른 양상을 펼 수 있다는 것을 배운 사례를 통해 지원자의 학습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 활동과정에서 지원자가 가진 생각과 이를 적용한 내용이 나타나고 적극적인 참여 태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사례4. 이렇게 쓰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습니다.]

국어 문법을 좋아해서 동아리 활동에서도 관련 공부를 할 수 있는 활동을 했습니다. 국어 문법 탐구 동아리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거나 모르는 내용을 선생님 혹은 친구들과 함께 알아가는 활동을 했습니다. 문법을 분석하는 활동은 어려웠지만 친구들을 돕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국어 교과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 입학사정관의 한줄 평

□ 억지로 학과와 연결시키는 것은 역효과

- 학습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쓸 때에는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문법을 분석하는 활동’을 했다면 단순히 그 활동을 했다는 것으로 서술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장 분석, 단어 분석 등의 사례들을 제시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을 새롭게 배우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서술해 주세요.
- 국어 문법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본인이 매료시켰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교과 성적을 올리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진심으로 본인이 호기심을 갖고 탐구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왜 구체적으로 적지 못했을까?

- 국어 문법을 좋아할 수 있고, 그래서 관련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법 전체를 공부하지는 않았을 테고, 얼마든지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지 쓸 수 있는데 안 쓴 것처럼 보입니다. 친구들이 어떤 내용을 몰랐는지 그래서 자기가 뭘 가르쳐줬는지도 충분히 구체적으로 쓸 수 있었고, 그 결과 국어 성적도 오르면서 자기가 뭘 느꼈는지, 대학에 가서는 어떤 내용을 더 탐구하고 싶었기에 이 학과를 지원했는지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 동아리 활동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활동의 범위 및 수준을 알 수 없어요.

□ 이렇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 활동에 대한 단순한 나열만 되어 있습니다.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학생부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입학사정관이 자기소개서를 통해 알고 싶은 것은 활동에 대한 지원자의 구체적인 과정과 생각입니다. 많은 활동을 나열하기보다는 하나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 문법을 분석하는 것이 어렵지만 즐거운 동아리 활동이었나 보내요. 함께 고민하고 배운 것이 무엇인지 실제 경험 사례를 통해 보충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더 잘될 것 같아요.
- 단순히 분석하는 활동을 했다고 적기보다는 어떻게 분석을 했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났는지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사례5. 이렇게 쓰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습니다.]

1학년 국어 시간에 ‘SNS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도출된 결론을 통해 SNS 사용이 청소년의 언어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청소년들의 언어 양식은 다른 세대와 구별되는 독특함을 가진 하나의 방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통해 언어 연구는 우리 주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입학사정관의 한줄 평

▣ 건너뛰지 말고 하나하나 과정을 보여주자.

- 보고서 작성의 경험을 쓸 때에도 단순히 ‘가설-결론 도출’로만 서술하기보다는 탐구주제를 설정하게 된 이유, 탐구과정에서의 주요 학습 내용, 구체적인 결과를 서술한다면 자기소개서가 한결 생동감을 가지게 됩니다. 누구나 다 예상 가능한 결론이라 할지라도 탐구 활동 과정의 서술이 어떤지, 이 활동을 통해 지원자가 어떻게 성장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글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설-결론 도출’ 사이에 어떠한 내용들이 더 들어가야 할지 이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보고서 작성에 대한 애용의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왜 이러한 주제를 설정하게 되었는지, 이 주제를 탐구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과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과 이러한 탐구 과정을 통해 얻게 된 생각과 그 결론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작성한다면 입학사정관이 지원자의 역량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구체적인 사례가 없습니다. 보고서를 왜 하필 그 주제로 택해서 쓰게 되었는지, 탐구 과정을 어땠는지, 결론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도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장 사이의 논리적 연결고리도 없습니다. SNS사용이 청소년의 언어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왜 다른 세대와 구별되는 독특함을 가진다는 것인가요? 이렇게 모든 문장이 다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알려주자.

- 보고서 주제 선정은 어떤 이유로 하게 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 결론이 도출되었는지와 같은 내용이 미흡합니다. 전반적으로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고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본인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보고서를 작성해보셨군요. 보고서는 주제 설정과 결과 제시도 중요하지만 연구 과정 또한 중요합니다. 중간 과정을 알 수 있게 서술해주면 좋겠네요.

[사례1. 이렇게 써보는 건 어떨까요?]

학급문집 총책임자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학급문집이 공동 과제라는 인식 때문이었는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문집에 넣을 내용을 제출일까지 내주지 않아 문집을 만드는 속도가 더뎠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들이 무책임하다는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총책임자’ 라는 특정 역할이 있었던 저와 달리 친구들에게는 어떤 역할도 주어지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혼자 모든 일을 총괄하고 친구들에게는 과제처럼 일을 부여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길이 보였습니다. 학급 회의 때 현재 문집 운영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후, 친구들 각각의 진로를 고려해 세부 부서를 나누었습니다. 미술 관련 진로인 친구들은 표지 디자인을, 국어 관련 친구들은 교정과 편집을 담당했습니다.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저의 직접적인 관여 없이도 각 부서끼리 모여 회의를 하며 내용을 쌓아갔습니다. ‘역할’ 과 ‘책임’ 이라는 것이 주어진 전후 차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딘가에 필요하다는 것이 느껴질 때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했습니다.

□ 입학사정관의 한줄 평

□ 대학에서 조별과제 활동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일까?

- 대학에서 이 학생이 조별과제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할지 또는 관심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공통의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할지 유추할 수 있는 좋은 에피소드와 해결방안입니다.

□ 실제 경험에서 드러난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

- 지원자에게 학급 내, 교내에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하는 슈퍼맨 같은 능력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고요, 작은 역할일지라도 그 활동 안에서 갈등 조정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동 능력을 발휘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지점을 찾아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지 서술하면 됩니다.
- 팀 활동에서 협력, 역할과 책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경험을 통해서 잘 드러냈습니다. 어떤 경험을 통해서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했습니다.
- ‘역할과 책임’ 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구성원들의 의지는 적었나보군요. 구성원으로서 맡은 바 ‘역할과 책임’ 을 실천하는 것은 시민의식과 협력에 필수적인 자세라는 점을 확인한 소중한 경험했네요.

□ 문제의식과 그에 따른 해결책

- 지원자가 가진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를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으로 연결하였고, 그에 따른 문제 해결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 책임자로서 협업 시 발생했던 문제 상황에 대해 피드백을 받고 슬기롭게 해결한 경험을 느낀 점과 함께 구체적으로 잘 작성해 주었네요.
- 총책임자가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과정을 통해 지원자가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부족한 점을 보완한 부분이 좋았습니다.

[사례2. 이렇게 써보는 건 어떨까요?]

프로젝트 중간점검 날 저희 팀은 프로젝트에 대해 더 고민해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팀원들과 소통의 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팀원들이 리더의 권위를 이용해 혼자서 자신들을 가르치려 하거나 이끌려고 하고 결정을 강요하는 모습이 고집불통으로 느껴졌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저도 팀장으로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인데 팀원들이 야속하기만 했고, 팀원들에게 사어를 받아 팀원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주일간 팀 모임을 잡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리더로서의 성과에만 급급했던 저를 발견하며 팀원들의 평가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결단력 있게 지휘하는 리더가 되고 싶었던 저의 강경한 행동은 팀원들을 수동적으로 만들었고 소통을 차단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실수를 인정하고 팀원들과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간 등하교 시간과 쉬는 시간에 한 친구씩 먼저 찾아가 친구들이 프로젝트에 대해 가진 고민, 생각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 입학사정관의 한줄 평

▣ 소통하는 리더의 모습

- ‘리더’는 참 어려운 자리네요. 리더가 되어 겪게 되었던 어려움을 소통으로 풀려고 하는 시도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첫째도 소통, 둘째도 소통 하는 이유입니다.
- 단체에서 리더의 역할을 맡은 일화에 대해 작성하고 싶다면 성과만을 나열하는 것보다 과정에서의 어려웠던 점, 팀원들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 서술하여 지원자의 협동능력, 갈등조정능력을 보여주었네요.
- 협업은 대학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량입니다. 본인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고집불통 리더가 아닌 소통할 줄 아는 리더로 자기반성을 통해 성장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잘 기술해 주었네요.

▣ 단점을 인정하여 한 발자국 앞으로 전진

- 본인의 단점을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초석으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에서 여러 프로젝트, 조별과제 등을 할 때 충분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학생으로 보입니다.
- 지원자의 단점이 될 수 있었던 경험을 진정성 있게 작성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진솔하게 작성되어 있네요.
- 리더로 활동하며 자신의 부족한 점을 스스로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 팀원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 모집단위별 인재상 참고

- 리더십과 협력이 무엇인지 직접 경험을 하고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점이 돋보입니다. 리더십과 협력을 주요 ‘사회 역량’으로 꼽은 학부·과에 적합한 좋은 소재입니다.

[사례3. 이렇게 써보는 건 어떨까요?]

1학년 때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 운영했습니다. 어린이들을 돌본 경험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 어느활동이 적합한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미로 활동을 너무 쉽게 계획하여 어린이들이 싫증을 냈고, 영어 퍼즐 활동은 어려워 어린이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입시 위주의 생활 동안 자기중심의 좁은 시야를 가졌던 것이 부끄러웠고 나아가 생활에서 주변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느꼈고 어린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학생들의 대화와 행동을 꾸준히 관찰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의 관찰을 통해 어린이 수준을 고려한 변형 게임을 제작하여 어린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눈높이의 중요성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배려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알고 나서 학교에서 영어 멘토로 활동할 때도 멘티의 학습상황을 제일 먼저 고려하고 학습목표와 방법을 계획하여 그 결과 2학년 때 친구들의 추천으로 인성생(배려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 입학사정관의 한줄 평

▣ 배려에 대한 자기 고민

- 단순히 배려가 중요하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배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문제점을 제시한 뒤, 그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했네요 그리고 그것이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천(관찰)을 통해 결과를 이루고 느낀 것까지 잘 작성했습니다.
- 봉사활동 사례를 작성할 때 이 활동을 하기 위해 지원자가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했던 지점을 찾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려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드러낸 점이 돋보입니다. 단순히 남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배려라고 생각하여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생각의 과정을 작성한 점이 좋습니다.

▣ 실패의 원인, 초등학생과 눈높이를 맞추다.

- 봉사 프로그램 기획을 주도한 과정과 함께, 초등학생들을 위한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을 통해 배려하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 소통에서 중요한 부분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방과 잘 맞추려는 자세라는 점을 깨닫는 자세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 실패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였네요 이러한 학생의 생활 태도가 향후 대학 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사례4. 이렇게 쓰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습니다.]

2학년 1학기에 청소당번을 정하는 문제로 몇몇 친구들이 갈등을 겪어 무리가 나뉘면서 학급의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이런 갈등이 막 시작되었을 때는 저는 학급 회장이 나서면 그 때 도와줘야지 라는 생각을 해줍니다. 하지만 회장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갈등이 깊어졌고 반 친구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낸 저는 리더는 아니지만 의견충돌이 심했던 친구들을 중재했습니다. 그 후 학급회에서 담당자가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청소 횟수를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학급 모두가 만족했습니다.

□ 입학사정관의 한줄 평

▣ 의견 충돌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중재하였는지?

- 반 친구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였다고 했는데, 의견충돌의 원인은 무엇이었고 중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는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작성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 학급 내 갈등관리, 불화 조정에 대한 일화를 쓸 때, 의견 충돌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자가 나서서 중재하였는지 서술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 학급 내의 상황과 본인의 역할을 단순히 서술했네요.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타협에 이르렀는지, 본인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는 건 어떨까요?
- 갈등 상황에서 본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는지, 어떻게 친구들을 중재하였는지 자세하게 작성한다면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것입니다.

▣ 나는 문제없다?

- 어떻게 중재했는지, 왜 중재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원자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사고방식의 소유자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 학급회장과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과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학급회장이 문제였고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나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학생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같이,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례5. 이렇게 쓰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습니다.]

장애인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봉사 초반에는 장애인분과 가까워지기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센터 선생님께서 장애인분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혼자 지내셨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피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도와드리려 했습니다. 제 노력에 장애인분들께서 조금씩 마음을 여셨고 나중에는 먼저 인사해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 때는 정말 보람찼습니다. 한 학기가 지났을 때쯤, 장애인센터 선생님께서 제가 오지 않는 날에 장애인분들이 저를 가끔 찾으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배려와 상대방을 위한 진실함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마음 깊은 곳에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 입학사정관의 한줄 평

□ 대학에서 원하는 학생은 착한 학생?

- 장애인센터에서의 경험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진실함 마음을 깨달았다는 좋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원하는 학부·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 역량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소재로 작성했으면 더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네요.
- 봉사 활동의 경험을 쓸 때 ‘친절, 배려, 선행’ 과 같은 피상적인 감상의 내용을 쓰기보다는, 봉사 활동의 실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지원자의 시민윤리의식, 협동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려’ 라는 단어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목적은 자신이 이 대학에서 충분히 잘 공부할 수 있는 인재임을 보여주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위 사례는 자신이 ‘착한’ 학생임을 드러낼 수는 있었지만 과연 대학에서 원하는 매력적인 인재인지를 보여주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 어떻게 마음을 열었을까?

- 배려와 상대방을 위한 진실함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활동을 나열한 것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하나의 경험을 통해 그것이 어떻게 배려와 진실함을 느끼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애인 분에게 어떤 행동과 노력을 통해 진실한 마음이 전달되었을까요? 정말 궁금해요.
- 도움을 주기 위해 장애인에게 어떻게 다녔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봉사 활동 과정에서 어떤 배려를 했는지 알 수가 없네요.
- 나눔을 위해 노력했다는 추상적 서술만 있을 뿐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정은 나타나지 않아요.

[사례1. 이렇게 써보는 건 어떨까요?]

평소 국제시사에 관심이 많았던 제1학년 사회 시간에 지구촌 분쟁과 갈등 단원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은 단순히 영토분쟁이 아닌 종교적 문제도 수반한다는 사실과 아직 지구촌에 다양한 분쟁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시간에 배운 국제 시사에 관심이 많아져 자율동아리 ‘월드이슈’에 가입하여 다양한 토론 활동에 참여하고 국제정세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중, 카탈루냐 독립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찬성 입장으로서는 부유한 지역의 독립은 분리주의적으로 이기적이라 생각했고, 국가의 GDP 20퍼센트를 차지하는 지역만큼 독립은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므로 반대했습니다. 스페인의 입장에서 발표하였지만 중립적인 의견으로 수렴해 국제문제에 진정으로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토론을 통해 의견을 존중하고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계기를 통해서 저는 현재의 국제 정세 및 상황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 입학사정관의 한줄 평

□ 1학년 사회 시간에서 출발한 국제문제의 관심

- 교과 수업시간에 배우고 탐구한 내용이 주제가 되어 동아리 활동에서도 확장하여 활동을 하는 등 관심 분야 학문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보여줄 수 있는 소재로 지원동기를 작성했습니다.
- 내가 왜 이 학부·과에 지원했는지 지원동기를 구체적으로 잘 작성했습니다. 단순히 이 공부를 하고 싶다고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공을 공부하기 위해 본인이 실제로 했던 활동이 무엇이었던지 작성함으로써 설득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 지원한 학과와 관련한 관심을 어떤 활동을 통해 어떻게 확장시켜나갔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한 점이 돋보입니다. 국제시사에 대한 관심을 단순하게 언급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주제와 활동 내용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잘 정리했습니다.

□ 관심 분야의 활동 경험

- 관심 분야에 대해 탐구하고 토론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어 지원동기와 자연스럽게 잘 연결이 되었네요.
- 고등학교 생활 동안 구체적인 학습과정과 이를 통한 성취를 바탕으로 지원동기를 작성하고 있네요.
- 단순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을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연결된 과정을 보여준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활동 경험이 지원하는 학부·과에 진학하여 어떤 분야로 확장할 것인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사례2. 이렇게 써보는 건 어떨까요?]

범죄를 해결하여 피해자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더욱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사이버 범죄를 다루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공학적 글쓰기와 의사소통, 의사결정과 토론’ 수업을 수강하며 기본적인 소통 능력을 기르겠습니다. 둘째, 보안에 대한 지식을 위해 ‘컴퓨터 보안, 네트워크 보안’ 수업을 수강하며 정보 보안에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셋째, ‘공학기술의 윤리’ 수업을 들으며 정보 보안에 필수적인 올바른 윤리 의식을 가지려 노력하겠습니다. 전공에서 배울 수 있는 의사소통과 정보 보안 능력, 올바른 윤리 의식은 훗날 저에게 큰 발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가 되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의 혼란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 입학사정관의 한줄 평

□ 학부·과 홈페이지 탐색

- 학부·과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업 정보가 실제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홈페이지 등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학습 로드맵을 짜는 것은 그 학과와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합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마이너스 요소는 되지 않겠죠.
- 우리 대학의 교양 및 전공 수업에 대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역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러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필요한 학과의 커리큘럼을 연계하여 서술했습니다.
-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 구체적인 과정을 작성했습니다. 어떤 수업을 통해 무엇을 얻어내야겠다고 구체적으로 작성한 것은 우리 대학 지원 학부·과에 대한 관심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이런 꿈을 이루고 싶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학습 과정을 언급한 점이 좋습니다.

□ 직업의식은 윤리의식으로 통한다?

-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 윤리의식이 필요하지 않은 직업은 없습니다. 당연한 결론을 고려하여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와 ‘윤리 수업’,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연결하니 맥 빠진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지원 학부·과 성격에 더욱 적합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렇다고 윤리적 직업인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 막연함을 줄이려면

- 진로계획의 경우엔 직업명을 쓰는 것은 가능하지만,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어떤 분야의 학문을 학습해야 하는지를 알아본 후 진로 방향에 대한 계획을 세워본다면 막연함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사례3. 이렇게 쓰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습니다.]

과학수업을 통해 전자와 회로에 대해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에 전자 전기 분야에 대한 학습을 위해 K-mooc 강좌를 수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관련 독서를 통해 세계 반도체 시장과 중국의 미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의 여러 기업은 혁신적인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여 국제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혁신적인 반도체 개발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에 보탬이 되는 공학도가 되자는 다짐을 할 수 있었고, 그에 걸맞은 역량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입학사정관의 한줄 평

▣ 추상적 서술의 한계

- 과학수업의 어떤 주제가 전자와 회로에 관심이 생기게 만들었나요? 전자전기 분야에 대한 학습을 위한 K-mooc 강좌는 무엇이었나요? 반도체 관련 독서 활동은 어떤 책이었고 어떤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나요? 이러한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 너무 추상적입니다. 모든 과학수업이 전자와 회로를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은 짧더라도 중요한 부분에서 구체성을 챙겨주어야 읽는 사람이 지원자가 어떤 학생인지 그려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도체 관련 독서도 지원자가 실제로 읽은 서적명을 언급해주었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 해당 학과에 지원한 동기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게 된 과정과 본인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내용을 지원한 학과와 연관시키면 더 좋겠습니다.

▣ 어떤 내용을 채워야 할까요?

- 반도체 산업에 기여하기 위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 역량, 관심 분야 제시가 미흡합니다. 주변 정세 또는 정해진 결론에 다가가기 전에 자신에게 집중해 보세요.
- 지원자에게 거창한 지원동기와 진로계획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일반적이고 흔한 상식의 위주의 관심사를 쓴다거나 막연한 계획을 쓰게 된다면 지원자의 포부와 장점이 잘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적어도 관심분야에 대하여 관련 도서를 찾아보고, 다양한 강좌와 자료를 찾아보면서 지원자의 기준을 세워 보고 그 내용이 이해가 되는 정도에서 지원동기와 진로계획을 쓰면 좋겠습니다.

[사례4. 이렇게 쓰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습니다.]

사회의 요구가 다원화됨에 따라 한 분야에 치중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들과 소통하며 그들을 이해함으로써 수요에 능숙하게 대응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고 싶습니다. 또한 독일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독일에서 학업을 이어나가면 법에 담긴 정신을 배우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우리나라 국민의 긍정적인 법 감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영감을 얻고 싶습니다. 최종적으로 시민을 위한 공공 리더로 성장하여 우리나라 참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저의 이런 포부를 꼭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와 함께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입학사정관의 한줄 평

▣ 어설픈 단계를 거친 거대한 포부

-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 시민 소통 및 이해, 독일 교환학생, 긍정적인 법 감정 등이 나열만 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시민을 위한 ‘공공 리더’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포부가 큰 것은 알겠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 독일 교환학생은 행정학과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학습 과정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하기에 독일 교환학생을 통해 행정학과에 지원하고자 하는 동기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행정학과에 지원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행정학과의 어떤 점이 본인을 공공 리더로 성장하게 만들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공공 리더’라고 하는 진로 계획은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공공 리더’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대학에 와서 어떻게 기를 것인지, 전공을 통해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 화려한 표현, 추상적인 용어는 부메랑이 됩니다.

- 전공에 대하여 향후 어떻게 공부할지 지원자의 목표와 학업계획을 쓸 때, 지원자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표현으로 풀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알아보았다는 생각에, 혹은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려고 지나친 개념어, 추상적인 표현을 쓸 경우 오히려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작성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포부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5. 이렇게 쓰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습니다.]

1학년 때부터 장애인복지관에서 봉사 활동을 해오며 거동이 불편하신 6·25참전용사 한 분을 보았습니다. 말동무를 하면서 그분이 근위축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위축은 근육약화와 움직임 조절하는 수의성 근육의 퇴화를 가지고 오는 유전 질환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근위축의 해결 방안으로 영화 ‘아이언 맨’의 슈트를 떠올렸습니다. 슈트를 입은 주인공이 무거운 물체를 쉽게 들어 올리는 모습은 슈트 즉 근력증강로봇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께 의료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력증강로봇은 사람의 근력을 보조해주는 장치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도를 센서를 통해 파악해 실행을 보조해주는 장치입니다. 근력증강로봇을 실제로 국방에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점차 확대하여 의료용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 입학사정관의 한줄 평

▣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가? 무엇이 핵심인가?

- 자신이 실제로 탐구한 부분을 작성해도 4번 문항 글자수를 넘치게 채울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듣기만 하고 검증하지 않은 내용들로 자신의 향후 진로계획을 채우면 전공에 대한 열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며 핵심에 도달하기 전의 문장을 너무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 전공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나열식으로 작성하거나 개념을 일일이 설명하기보다는 경험을 통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의 변화에 대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공 분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

- ‘~고 들었습니다. ~고 합니다.’ 같은 문장은 관련된 내용을 깊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력증강로봇에 대한 언급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며, 지원자 본인 또한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작성한 부분으로 보여 좋은 소재는 아닙니다. 근력증강로봇이 의료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어떤 원리로 어떤 방법을 통해 근력 보조 장치로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작성해보기 바랍니다.
- 아이언맨 슈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공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 글의 연결이 전반적으로 매끄럽지 못하고 본인의 구체적인 학업계획이 작성되지 않아 추상적인 느낌을 줍니다. 지원학과와 커리큘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 사례 A

○ 1번 문항

이전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단순히 문제만을 바라봤지만, SWOT 분석을 처음 접하며 상황을 명확히 인식해 적절히 판단할 수 있음을 깨닫고 이를 다른 문제에도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생략) 미적분 문제를 그래프를 활용해 해결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지만, 좋은 결과를 얻고 싶은 강한 의지와 제 약점을 확실히 알고 구체적인 학습계획을 세운다는 ‘강점’이 있었습니다. (생략) 저는 약점과 기회를 결합해 여름방학 때 일상 속 숨겨진 수학 원리를 발견한 ‘미적분으로 바라본 하루’라는 책에서 함수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생략) 그 결과,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과제도 침착하게 분석해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 부족한 내신 성적을 극복한 방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점과 기회로 약점과 위협을 극복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제 자신만의 스토리를 담았습니다.

○ 2번 문항

1학년 영어 프로젝트 시간에 청소년기 스마트폰 중독을 프로젝트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단순히 줄이기보다 오히려 스마트폰을 활용한 해결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생략) 이를 통하여 사고의 전환의 중요성과 함께,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생활을 되돌아보고 성찰하여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경제, 경영에 대한 관심으로 교내 경제 동아리 3M에 가입했습니다. 2학년 때부터는 동아리에서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친구들을 하나로 이끌겠다는 포부로 부장이 되었습니다. (생략) 거대한 산업을 이끌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실시한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의 사례와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다른 조가 조사한 경쟁 기업의 경영, 마케팅 방식을 통해 본인만의 브랜드를 형성하는 엔터테인먼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각자의 비전에 맞는 기업의 독창적인 브랜드 콘셉트의 창조가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생략) 동아리 활동을 통해 경제, 경영에 대한 폭넓은 관심이 마케팅 분야로 구체화되어 좁혀지게 되었고, 제 관심사와 관련된 진로에 대한 고민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법과 정치 시간에 관심 있는 사회현상을 발표하는 활동에서 ‘소비 트렌드’를 주제로 선정해 한 해 동안 소비자의 소비패턴과 사회현상에 따른 다음 연도의 소비 트렌드를 알아봤습니다. (생략) 이 과정에서 기업의 효과적인 경영, 마케팅을 위해 사회변동에 따른 소비자의 요구를 재빨리 파악해 반영하는 것의 중요함과 다양한 정보들을 분석하여 서로 연관 짓는 능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제가 한 활동 중 가장 의미 있던 3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각각의 활동의 과정을 설명하고 느꼈던 점과 그 후 노력한 점을 중심으로 전개해 나갔습니다. 3가지의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시간 순으로 배열 하였습니다.

○ 3번 문항

1학년 때 읽은 ‘히말라야 도서관’이라는 책을 계기로 봉사활동의 소중함을 느껴 주변에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있는 봉사활동을 찾기 위해 자율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처음 인연을 맺게 된 해성보육원에서 월 1회 지속해서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생략) 한 번은 아이들이 먹을 음식의 재료 준비를 위해 음식재료였던 당근을 다듬던 중 유독 당근 편식이 심한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봉사활동시간에 그 친구와 함께 음식재료를 다듬어 보았습니다. 음식재료를 손수 다듬어 보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노력이 담겼는지 알려주고

음식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식습관에 관한 내용을 담은 동화책을 읽어주고, 역할극을 해보면서 즐겁게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가치관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아이와의 시간을 통해 아이의 시선에 맞춘 소통과 전략이 아이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게 되어 뿌듯했고, 나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공감하는 것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생략) 나눔은 작은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고, 일상생활에서 다른 소소한 나눔에도 참여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 봉사활동에서 한 일을 나열하기 보다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를 중심으로 전개했습니다. 제가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다른 소소한 나눔에도 참여해야겠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배우고 느낀 점을 표현했습니다.

○ 4번 문항

저는 평소에 뉴스나 기사를 보며 사회 이슈를 파악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경제, 경영이 사회이슈들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며 이들의 영향력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던 중 교내 동아리에서 기업분석 활동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로 브랜드를 노출하는 전략을 보며 문화를 창조하고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브랜드 마케터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2학년 실용경제시간에 창업프로젝트로 학생들이 가방에 많이 다는 에코 스트랩키링을 제작, 판매했습니다. (생략)이 과정에서 기업의 이익 추구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이익도 고려하는 ‘착한’ 마케팅을 시행할 수 있는 혁신적인 마케터를 꿈꾸게 됐습니다. 법과 정치 시간에는 학교 주변 불법 주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외국의 사례를 적용한 법령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사회문제를 인식하여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상 관찰력이 중요함을 느끼고, 구청에 건의문을 올리며 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력도 얻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경영인에게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주도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키웠습니다. (생략) 이런 저에게 인하여 경영학과는 경영, 마케팅뿐만 아니라 경영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자질을 배울 수 있는 최적의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 브랜드 마케터라는 진로를 선정하게 된 이유와 함께 경영분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인에게 꼭 필요한 윤리적 자질과 실행력을 보여주려 노력했고 이러한 자질이 지원하는 전공에 얼마나 적합한지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나. 사례 B

○ 1번 문항

‘모든 사물의 이치’ 라는 물리의 사전적 개념을 알고 물리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학습동기로 작용했으나 혼자서 공부하다 보니 물리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암기에 치중하는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리를 활용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학생이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접장교실이었습니다. (생략) 친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했고, 그 결과 물리심화실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생략) 실험에서 구한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과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면서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면서 개념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 문제에 어떤 개념이 녹아들었는지 토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를 풀 때 내포된 개념이 무엇인지부터 보게 되는 습관이 생겼고, 물리 성적을 향상시켜주는 큰 요인이 됐습니다. (생략) 이를 통해 두 학문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물리문제는 미분과 적분을 이용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으로 소통하는 것이 다방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고, 끊임없이 궁금해 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탐구해야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략) → 우선 물리의 사전적 개념을 밝힘으로써 물리에 대한 관심을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물리학습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를 직접 실험을 통해 몰랐던 부분에 대해 알아가고 이해함으로써 해결해나간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친구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접장교실’ 도 운영했기 때문에 자기주도적 학습보다는 관련 활동

들을 많이 함으로써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활동에 참여하여 이를 알아가는 과정이 많아 그 과정을 글로 작성했습니다. 마지막은 이 해결 과정을 통해 배운 점을 적어 글을 마무리 했습니다.

○ 2번 문항

평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답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2학년이 되어 이 습관을 심화하여 한층 성장하기 위해 과제연구에 참여했습니다. 평소 항공기술에 관심이 많아 (생략) ‘날개모양 변화에 따른 양력변화와 효율성’이라는 주제로 연구했습니다. 책과 논문을 통해 동일한 추력을 주기 위해서는 라이더의 작용하는 힘과 각도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략) 저는 설계도를 만들어 팀원에게 발사대를 만들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설계도를 따라 발사대를 제작한 후 실험을 진행하니 (생략) 이를 통해 통제변인을 설정하는 것이 연구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추후에 발사대는 발명아이디어 대회에서 우수작품으로 선정되었고, 뿌듯함을 느낌과 동시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사고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고 실험에 임하다 보니 적극적인 탐구 자세를 기를 수 있었고 동시에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방식에 대해 생각하면서 사고의 영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3학년 자율동아리에서는 비행기 날개에 달린 플랩과 스포일러가 비행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후속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생략) 방향전환에 필요한 힘이 어떻게 생기는지 직접 찾아보고 공부함으로써 베르누이의 정리에 해당하는 속력과 압력 사이의 관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원리를 기반으로 상황을 설정하여 실제 실험 결과와 맞는 지까지 진행해보니 자율적인 탐구활동에 재미를 붙여 넣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두 활동을 하면서 항공기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고, 주도적이게 실험에 임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미래에 스스로 주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깊이 탐구하는 능동적인 공학도가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 “클러스터” 활동이 자기주도적으로 실험하고 연구했던 활동이었기 때문에 가장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활동이었습니다. 틀이 짜여 있는 활동을 여러 번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만 해나가는 활동이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활동을 소재로 잡았습니다. 그중 발사대를 제작했던 과정이 가장 노력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 나 자신의 구상만으로 틀을 짰 후 목재를 이용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이 활동에서 생긴 호기심을 해결하는 과정을 작성했습니다.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이어지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문맥이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더불어 스스로 생긴 호기심을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활동으로 소재를 잡아서 2번 문항을 작성했고, 마지막은 이 활동들로 인해 배운 점을 작성하여 마무리 했습니다.

○ 3번 문항

저희 학교는 인근 중학교와 연계하여 과학탐구활동을 진행하는 ‘공유결합’이라는 멘토링 활동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지식을 나누고 과학적 성향을 키우고자하는 취지가 맘에 들어 참여하게 됐습니다. (생략) 실험을 했는데, 멘토라는 책임감 아래 멘티를 가르치려다 보니 계속해서 제 주장만 강조했습니다. 결국 독단적인 선택으로 멘티에게 제작방법을 소개했지만, 당황한 멘티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저 혼자 주로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다른 팀과 비교해 봤을 때, 부진한 성적임을 알았고 결과물을 시험해 봤지만 물 컵이 떨어지는 최악의 결과가 됐습니다. (생략) 그래서 가르치려는 것보다 서로 배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활동에 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멘티와 협력하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하나의 수치를 구할 때에도 호흡을 맞춰 진행했고, 부가적인 설명도 해주면서 멘티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주변 팀과 비교했을 때 근소한 차이로 저희 팀이 구하려는 값에 가장 가까워서 뿌듯했습니다. (생략)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장점을 배우려는 자세를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공유하는 것이 많을수록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니다. (생략)

→ 우선 다른 활동에 비해 “공유결합” 활동이 나에게 있어서 멘토의 의미와 협력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이 활동으로 잡은 것이고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서술하면서 글을 작성했습니다. 먼저 나의 문제점을 밝힘으로써 협력을 하지 않았을 때 부정적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강조했고, 이를 깨닫고 반성하면서 협력을 하고 난 후 얻게 된 점을 언급하면서 글을 서술했으며, 깨닫게 된 점을 마지막으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 4번 문항

1학년 때 교내에서 진행된 이공계 교수님의 강연 내용 중 인공위성 제작 과정에 종이접기 기술을 접목시켜 태양전지판의 지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많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더불어 항공우주 관련 독서나 교내 연구 활동을 하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생략) 기계공학과 관련된 탐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학 동아리에서 ‘RC비행기에 구조와 원리를 이용해 라이더의 추력 만들기’ 라는 주제로 실험했습니다. (생략) RC비행기의 부품을 라이더에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이를 구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작과정 중 아두이노를 라이더 날개에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결책을 생각하다 보니 (생략) 삶에 있어서 기계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으로 추후 무인 항공기나 아직 개발되지 않은 다양한 발사체들을 제작해야겠다는 꿈이 확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종이접기 기술을 연마해 발사체에 접목시켜 유기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의 또 다른 목표이기도 합니다. (생략) 인하대학교의 우수한 장비 실적과 글로벌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진행된 공학인증제라는 프로그램은 해외 유학에 도전하고 싶은 저에게 큰 목표가 되었습니다. (생략)

→항공우주기술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를 서두에 언급함으로써 지원동기에 대한 설명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처음 갖게 된 관심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 활동 중 하나인 동아리 활동을 언급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어떤 활동인지 소개하고 그 속에서 내가 한 역할은 무엇인지 작성했습니다. 그 후 이 활동으로부터 내가 깨달은 점을 작성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목표를 세워 작성했습니다. 마지막은 조사를 통해 알아낸 공학인증제도를 언급하면서 큰 목표 하나를 마무리로 글을 작성했습니다.